

[업계소식]

◆ 로지스올(LogisALL),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 참가



지난 4월 26일부터 29일까지 4일간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지식경제부가 주최하고 한국체인스토어협회와 코엑스가 주관한 '2011 한국국제유통산업전'이 개최되었다.

이번 행사에 로지스올(LogisALL)그룹의 한국파렛트폴(주), 한국컨테이너폴(주), 한국로지스폴(주) 등이 참가하여 사업부문 소개 및 판넬, 파렛트, 컨테이너, 지게차, RFID 제품을 전시해 홍보활동을 펼쳤다.

또한 26일에 진행된 '유통인의 밤' 행사에 로지스올(LogisALL) 서병륜 회장이 참석하여 유통물류업체 관계자들과 정보 교류와 상생 협력을 논의하는 등 물류시장 활성화에 힘을 실었다.

이번 전시회는 평일에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유통물류관계자 외에 일반관람객들도 많이 관람하여 유통물류의 최신 경향에 대한 뜨거운 관심을 볼 수 있었다.

◆ 영림목재(주), 곰팡이 미발생 LVL파렛트 등 선보여

영림목재(주) 물류사업부가 고양 킨텍스의 국제물류기기전시회(코리아매트2011, KOREA MAT2011)에 표준파렛트를 선보였다.

이번에 전시되는 영림목재(주) 파렛트는 국가표준 파렛트인 T-11형에 물류표준설비인증을 취득하고 ISO14001을 획득한 환경 친화적인 파렛트 제품들로 주요 제품으로는 기존 북양재, 남양재의 다양한 소재 등을 통해 내수용 및 수출용으로 사용되는 나무파렛트들이다. 수출용은 기생충 박멸을 위해 열처리된 제품들이다.



또한 국제 표준 파렛트인 1100mm×1100mm의 플라스틱 파렛트와 2차 가공 및 건조 제품으로 곰팡이가 발생하지 않고 검역 미대상 소재라 수출입 업체로부터 좋은 반응을 얻고 있는 LVL파렛트가 전시되어 눈길을 끌었다.

한편, 영림목재(주)는 이번 코리아매트2011 전시회에 경량형 컨테이너로 자동차 부품 포장에 많이 사용되는 와이어 메쉬 파렛트와 중량형 CKD 박스로 제품의 특성에 따라 사용 할 수 있는 메쉬컨테이너(MESH CONTAINER)도 전시하였다.

◆ 북항배후단지, 영림목재(주)와 (주)NKG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



인천항만공사는 지난 6월17일 북항 배후단지 입주기업 선정을 위한 사업계획서 평

가 결과 목재(A)에 영림목재(주)를, 목재(B)에 (주)NKG를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이와관련 인천항만공사 관계자는 “이번 인천항 북항배후단지 입주기업 모집에 목재부지 2곳에 6개 업체, 잡화부지 1곳에 2개 업체 등 모두 8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며 “이중 목재부지 A지역에 영림목재 컨소시엄이, B지역에는 NKG가 선정되었다”고 밝혔다.

목재 A부지에는 영림목재 컨소시엄과 태신 컨소시엄 등 2곳이, 목재 B부지에는 동양목재 컨소시엄, 아주목재 컨소시엄, 광원목재, NKG 등 4개 업체가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그러나 목재업종을 제외한 다른 업종 기업의 관심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분양면적 22만853㎡중 9만3천354㎡(43%)에는 단 한곳도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지 않았다. 잡화부지 2곳과 철재부지 1곳에는 관심을 보인 기업이 없어 재 모집해야 한다.

◆ 용마로지스(주), 창립 28주년 기념식



용마로지스(주) 창립 28주년 기념식이 2011년 7월 1일 본사에서 진행되었다. 임직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장기근속(20년, 10년 근속), 공로상 시상과 감사패 전달을 하며 창립 28주년을 축하하였다.

박동환 사장은 창립기념사를 통해 “이제 1000억대 매출달성과 함께 더 큰 도약을 위해서는 성과지향적 소통과 정서적 소통이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커뮤니케이션에 힘써야 한다”고 당부하였다.

◆ 용마로지스(주), 201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 실시



용마로지스(주)는 지난 4월 17일부터 18일까지 1박 2일 동안 충남 천안에 위치한 휴러클리조트에서 2011년 상반기 경영전략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경영전략회의에는 박동환 대표이사와 새로 부임한 신동욱 부사장을 비롯한 담당임원 및 각 부서장 등 총 74명의 인원이 참가하였으며, 2011년도 1/4분기 매출 실적 분석 및 연간추진 전략을 공유하고, 유튜브 절감 운전 사례와 2010년 영업우수 및 DC(Distribution Center) 평가 우수시상이 진행되었다.

또한 “Back to the basic”이라는 주제로 박주용 영업본부장이 강연을 하였으며, “조직을 살리는 소통과 리더십”이라는 주제로 전 대우자동차 이사 및 한국리더쉽센터, 한스컨설팅 대표인 한근태 소장을 초청하여 소통과 커뮤니케이션을 통한 조직 활성화에 대한 초빙강연을 진행하였다.

◆ 이견산업, 합판 주문 폭주에 ‘즐거운 비명’

지난해 외산 합판의 공세와 건설비수기 등으로 실적 부진을 겪었던 이견산업이 최근 밀려드는 주문량을 맞추느라 즐거운 비명을 지르고 있다. 이견산업 측은 합판 주문량이 일 생산량에 가깝게 증가하고 있다고 지난 5월 17일 밝혔다.

이견산업 관계자는 “합판뿐 아니라 주력제품군 중 하나인 콘크리트관널(CP) 가격도 연초대비 36%나 올라 실적개선에 큰 도움을 주고 있다”며 “계절적 성수기로 접어들면서 수요가 확대되고 추가 가격상승을 대비해 물량을 확보하려는 주문까지 겹치고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대한건설협회 자료에 따르면 국산 건설용 합판(12mm×3'×6' 규격, 도매기준) 가격은 장당 1만4000원 수준에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을 초 대비 48%나 오른 가격이다.

국산 합판의 강세현상은 을 2월 정부가 국내 유통물량의 35%를 차지하는 말레이시아산 합판에 대한 덤핑관세부가로 가격 경쟁력이 확보된데다, 일본이 지진 재건에 나서면서 국내로 향하던 동남아산 합판의 수급이 깨졌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 두산인프라코어, '두산국제공작기계전시회' 개최

경남 창원에서 열려, 딜러 등 3300여명 참석



두산인프라코어(사장 김용성)는 지난 5월 11일부터 14일까지 경남 창원소재 공작기계 공장에서 제 8회 두산국제공작기계전시회(DIMF : Doosan International Machine Tools Fair)를 개최하였다.

지난 97년부터 2년마다 열리는 DIMF는 두산인프라코어 자체 공작기계 전시회로 올해는 유럽, 미주, 중국 등 세계 38개국 딜러와 학계, 협회, 회원사, 협력사 등 총 3300여명이 참석하였다.

올해는 대형 중장비 가공에 쓰이는 대형 공작기계 등 총 65개 제품이 소개되어 관련 업종의 종사자들 및 일반인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 국제물류기기전 킨텍스서 개최

세계 23개국 600여 기업 참가



제1회 국제물류기기전이 지난 6월 14일부터 17일까지 4일간 경기도 고양시 킨텍스(KINTEX)서 개최되어 세계 23개국에서 600여 기업이 참가하였다.

이전 국제물류기기전은 물류기기, 물류자동화와 관련된 최신 물류기술을 선보이는 동시에 미래물류기술을 전망해 볼 수 있는 국제워크숍 등도 동시 개최하여 물류기기와 관련된 종사자 외에 일반 관람객들에게도 많은 관심을 보였다.

이전 전시회는 전시품목을 물류창고시설, 운송물류기기, 물류IT시스템 등으로 전시 품목 전문화를 꾀하였으며 주요 참가품목으로는 파렛트, 랙, 물류창고 관련 설비, 컨베이어, 물류운송기기 및 관련 설비, 지게차, 고소작업대, 냉동탑차 등이 선보였다.

또한 물류의 흐름에 있어 중요한 요소인 '포장' 산업과의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16 회째를 맞는 국제포장기자재전(KOREA PACK)과 통합하여 동일장소 동일기간에 동시 개최되어 많은 기대와 관심이 집중되었다.

이번 2개 전시회의 통합으로 물류와 포장기술의 공동전시회를 통해 '포장물류합리화' 필요성 및 방향에 대한 아이디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된다.

◆ 물류신문사 본사 확장 이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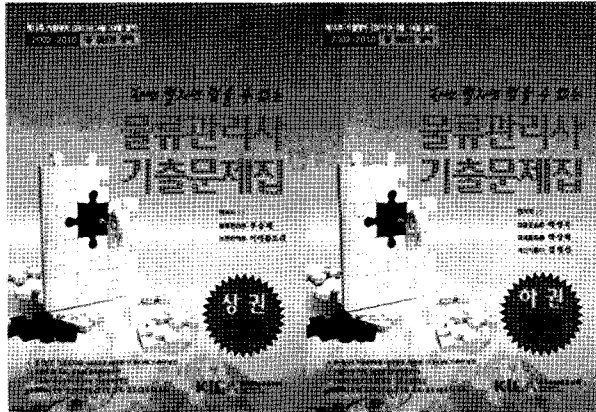
교육시설 갖추고 '글로벌 SCM 물류 전문미디어' 도약 발판 다져

올해를 '제2 창업의 해'로 정하고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고 있는 물류신문사가 사무실을 확장 이전하였다.

물류신문사는 회사 비전인 '2020년 글로벌 물류정보 메카' 구현을 위한 기반 구축과 함께 물류전문인력 양성을 통한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고자 이번 사무실 이전을 계기로 교육사업을 본격화하고 이를 위해 최적의 교육환경을 갖춘 교육센터를 마련하였다.

물류신문사는 '제2 창업'의 정신으로 2020년 글로벌 SCM 물류 전문미디어로 성장하여 물류산업 발전에 기여하리라 내다본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물류관리사 기출문제집 발간 8월 14일 제15회 물류관리사 시험 실시



한국통합물류협회(회장 석태수)는 『한번 펼치면 덮을 수 없는 물류관리사 기출문제집(상, 하권)』을 발간하였다.

기출문제집은 시험접수 후 약 2개월 정도의 준비기간에 합격을 준비하는 사람들을 위한 필독서로, 지난 9년간의 기출문제를 내용별로 종합하였다. 기출유형 족보를 비롯하여, 내용별 출제확률 분석, 단원별 핵심정리 및 관련 기출문제를 해설하였다.

또한, 기출문제를 분석한 족보와 과목별 핵심분야를 제시하고, 내용별 핵심정리와 기출문제를 한 Chapter에서 보게 함으로써 문제에 대한 통찰력을 키워 높은 점수를 기대할 수 있도록 구성했다.

한편, 제15회 물류관리사 자격시험은 오는 8월 14일에 실시되며, 원서접수는 6월 13일부터 22일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홈페이지에서 접수한다.

◆ 한국통합물류협회, 조직개편하고 공동물류 구매 사업 추진 임시 이사회 개최 조직개편 등 여러 안건 승인



한국통합물류협회가 지난 6월 28일 대한상공회의소중회의실에서 임시 이사회와 총회를 개최하고, 총회 안건인 조직개편에 대한 보고와 임원진 선임에 대한 안건을 각각 통과시켰다.

이날 총회에서는 상근임원을 1명으로 축소하고, 사무국 조직을 3개팀으로 슬림화하여 효율성 높은 조직으로 변경하는 조직개편안을 승인했다. 이번 개편을 통해 협회의 정상화가 이뤄진다면 현재까지 쌓은 3억 원 가량의 재정 적자도 해결될 것으로 한국통합물류협회측은 전망하고 있다.

한편, 회원사와의 소통강화를 위해 주요 회원사들로 구성되는 “회장단 회의”를 신설하기로 하며, 중소물류기업에게 도움을 주기 위해 공동구매 사업 추진 내용이 언급돼 주목되었다. 공동구매 사업은 회원사들의 관심을 유도해 연회비 완료율을 높인다는 방침이다.

◆ 2012년 물류창고업 등록제 시행 된다.

6월 30일 본회의 통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

창고업 등록제를 담고 있는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이 6월 30일 본회의를 통과 했다.

이번에 통과된 개정안에는 물류창고와 물류창고업의 정의 규정을 마련했으며 일정 규모이상의 물류창고업에 대해 등록제를 도입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또한 화주에 대한 서비스 향상등에 기여한 물류창고업자를 우수업체로 인증하고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 받은 물류창고업자에게는 인증을 취소할 수 있도록 했다. 물류창고의 건설 등을 위해 물류창고업자에게 자금을 보조 또는 용자할 수 있도록 했으며 등록대상이나 등록하지 않고 물류창고업을 경영한 자에 대해 벌칙을 가하도록 되어 있다. 또한 시설 부담금을 한시적으로 면제 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했다.

본회의를 통과 한 ‘물류시설의 개발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은 정부의 공포를 거쳐 내년 초부터 시행 될 예정이다.

◆ 종합물류인증제, 실효성 있는 제도로 재탄생하나

인증요건 강화해 충족시키는 기업에 집중 지원 사격 방침

정부가 종합물류인증제를 대폭 개편한다. 겹대기 인증에 불과하다는 기존 종물업인 증명체들의 불만을 최소화하고자 종합물류기업인증제도를 개선, 보다 실효성 있는 제도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게 정부의 의지다.

이미 제도개편에 대한 대략적인 가이드라인은 나온 상황이며 지난 6월 초 기존 인증업체들과의 간담회에서 이러한 내용을 전달했다. 정부는 지난 6월 중으로 개편방향에 대한 업계 및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해 6월 말 종합물류기업인증규칙·요령 개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이 후 기존 정부가 생각한 인센티브 확대를 위해 7월 중으로 타관련부처들과 협의해 이를 추진해나간다는 전략이다.

◆ 한-EU FTA, 7월1일 발효

목재용 스테인 등 즉시 관세폐지

7월1일부터 한-EU 자유무역협정(FTA)이 발효됨에 따라 목재수입 관세도 대폭 감소하거나 철폐된다. 관세철폐에 포함되는 부분은 원목, 베니어 패널 등이다.

목재용 방부도료로 쓰이는 오일스테인, 수성스테인, 불투명 오버코트 등도 관세철폐 품목에 들어가는 것으로 확인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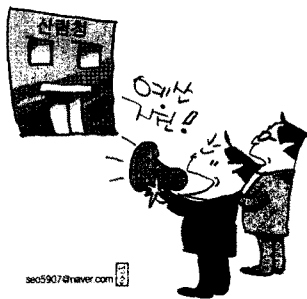
침엽수 및 펄프 제조용 등으로 사용되는 뿔나무 △햄록, 적송 등의 원목류 △베니어 합판 등 품목들은 7월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그밖의 품목들도 올해를 기점으로 7.2%나 5.2% 정도로 관세율이 인하되기 시작해 2014년경이면 관세가 거의 철폐된다.

낙엽송 자작나무 미송 등의 제재목은 7월1일부터 3.7%로 관세율이 인하되며 2012년에 2.5%, 2013년에 1.2%로 조정된다. 2014년부터는 관세가 철폐된다. 배니어용 단판은 올해부터 4.1%의 관세가 부과되며 해마다 0.8%씩 관세를 인하해 2016년경 모든 관세가 철폐된다. 제재목 중에서 느릅나무와 흑단 등도 해마다 0.8%씩 관세를 인하한다.

◆ 목재협, 산림청에 자금지원 요청

산림청에 예산지원 요구



대한목재협회(회장 양종광)가 인천 목재단지 조성에 따른 산림청의 자금지원 요청을 본격화하고 있다. 협회는 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지난 6월 9일 대전 산림청을 찾아 산림자원국장을 면담하는 한편, 6월 22일에는 산림청장과의 면담에서 이 문제를 다시 거론하였다.

양종광 회장과 문성렬 부회장을 비롯한 양용구 이사, 한국목재공업협동조합 김용한 전무가 함께한 6월 9일 면담에서 협회는 △인천 북항 목재산업단지 입주업체 선정 심사에 산림청의 지원 △300억원 규모의 목재산업단지 입주시 시설 및 장비 등 기반 구축을 위한 자금지원 △ '나무 바로 알리기 운동' 추진을 위한 예산 지원 등을 요구했다.

◆ 남양재 산지가격 상승에 경계

남양재 원목의 산지가격은 높은 가격으로 인상됐다. 우기 이후 출재가 회복됐으나 사바주 등은 기상악화가 이어져 원목 수급이 타이트해졌다.

산지가격 인상은 현지 합판공장과 인도, 일본이 주로 견인했으나 중국 수요는 높은 가격으로 활기를 띠지 못하고 있으며 인도도 높은 가격에 경계심을 보이고 있다. 또 현지 합판공장도 원목 부족이 다소 완화됐다는 견해도 있으나 이전보다 개선된 수준이다.

조작용재는 국내의 현물 부족이 이어지고 있다. 말레이시아에서는 합판공장과 수출용으로 원목이 거래되어 현지 제재공장은 만성적인 공급물량부족을 보이고 있다. 집성판도 합판 등의 과열현상에 이끌려 산지가격 상승이 이어지고 있으나 물량확보 우선에서 실제 입항시기와 실수요 동향을 관망하는 신중한 구매로 전환되고 있다.

◆ 합성목재 폐기비용 방부목에 비해 7배 높아

합성목재 폐기물 재활용 문제 노출

독성이 없는 친환경 소재라 주장하던 ‘합성목재’가 최근 독성물질 함유 보고서가 발표돼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환경부 고시 2008-150호에 의하면 방부목은 고시 종류에 없으나 목재폐기물로 분류해서 소각시설이 갖추어진 곳에서 소각한다. 이때 폐기비용이 톤당 21,000원이다. 반면 합성목재는 폐합성수지 혼합품목으로 분류하면 톤당 170,000원을 내고 폐기해야 한다. 환경부 폐자원 관리과의 최병운 사무관은 “‘방부목’ 자체는 고시에 규정되지 않았으므로 열거되지 않은 폐기물은 유사한 폐기물 종류의 처리단가를 적용하게 되는데 ‘폐목재’로 보아야 하며 합성목재는 폐합성수지 혼합품목 폐기물로 보아야 한다”고 말했다.

방부업계에서는 “합성목재제품은 제품 설치 후 다시 재활용할 수 있다고 하지만 현재 합성목재는 수지성분이 표기되지 않고 있어 재활용이 어렵다”고 말한다. “합성수지는 수지성분별로 수거해야 재활용할 수 있는데 이런 점에서는 전국에서 사용수명이 다한 합성목재를 표시도 안 돼 있는데 분류해 수거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는 관계자들의 얘기다.

◆ ‘복합목재’ 안 된다 “이구동성”

업계, 기술표준원에 한글명칭 및 성능기준 이의제기

기술표준원이 ‘합성목재’를 ‘복합목재’로 바꿔 KS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한 목재업계의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사)대한목재협회가 이에 대한 이의 제기에 나섰다. (사)한국목재보존협회 또한 조만간 입장을 정리해 의견을 제출한다는 계획이다.

기술표준원은 지난 5월2일 ‘합성목재’에 대한 ‘KS_F_NEW_2011_0148 등 1종 제정 예고고시’를 하고 오는 7월1일까지 의견을 제출받고 있다. 그런데 ‘합성목재’의 한글명칭이 ‘복합 목재 바닥판’(Wood Plastic Composite (WPC) Deck Board)으로 돼 있다는 게 뒤늦게 알려지면서 목재업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목재협회는 기술표준원에 보낸 공문 ‘KSF3230 복합목재바닥판 제정예정고시에 대한 의견제시’를 통해 “제정예정고시된 규격의 제품 명칭이 ‘복합목재바닥판’으로 되어 있는데 이는 이 제품이 플라스틱류와 혼합되어 있는데도 목재 소재만 복합적으로 혼합된 목재로 오해 받을 소지가 많다”며 “따라서 제1안 ‘목재플라스틱복합체 바닥판’ 제2안 ‘복합체바닥판’으로 명칭을 바꿔야 한다”고 요구했다.

◆ 국내 진출 해외 물류기업 70% “투자 늘릴 것”

대한상의,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조사’ 실시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손경식)가 최근 국내 진출 글로벌 물류기업 220개사를 대상으로 ‘글로벌 물류기업의 국내진출 현황 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67.5%는 ‘앞으로 시설투자 확대 등 적극적 성장 전략을 펼 계획’인 것으로 조사됐다. 반면 ‘사업을 축소하겠다’는 응답은 2.5%, ‘한국시장에서 철수하겠다’는 답변은 한 곳도 없었다.

국내 물류시장에 대한 전망도 밝은 것으로 조사됐는데, 70.8%의 기업들이 ‘주변국과의 경쟁심화로 성장폭이 크진 않지만 시장규모는 확대될 것’으로 예상했다.

‘동아시아 물류시장의 성장세에 따라 시장규모가 크게 확대될 것’이란 응답은 15.0%, ‘현재 시장규모를 유지할 것’이란 의견은 11.7%를 차지했다. ‘시장이 축소될 것’이란 답변은 2.5%에 그쳤으며, 향후 5년 내 성장률은 약 10% 정도로 전망했다.

◆ 2015년 미국 파렛트 수요 13억 유닛 달할 듯

플라스틱 파렛트 비중 늘어날 전망

오는 2015년 미국 내 파렛트 수요가 13억 유닛에 달할 것으로 전망됐다.

최근 한국교통연구원의 <글로벌물류기술 주간동향>(190호)에 따르면 미국 컨설팅기업 프리도니아(Freedonia) 그룹은 미국 내 파렛트 수요가 매년 6.1%씩 늘어 2015년에는 13억 유닛에 이를 것으로 전망했다.

2007년부터 2009년 동안 제조업 생산 위축으로 10억 유닛 이하로 감소했다가 지난해 부분적으로 회복된 미국내 파렛트 수요는 향후 제조업 생산 증가에 따라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란 예측이다.

특히 플라스틱 파렛트의 비중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프리도니아 그룹에 따르면 미국내 플라스틱 파렛트 수요는 2015년까지 두 자리 증가세를 나타내 3,450만 유닛 규모로 확대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러한 확대 추세에도 불구하고 플라스틱 파렛트의 2015년 시장 비중은 2.65%에 머물 것으로 보인다.

◆ 칠레산 파렛트재 활발한 거래 이루어져

칠레산 파렛트재는 일본과·중국·한국을 중심으로 포장재 수요가 활발하여 산업용 자재로서 강한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칠레의 경제는 좋아지고 있으며 작년 2월 칠레의 대지진 피해도 빠른 시일 내에 복구되어 2010년 경제성장률이 7%나 달성되었으며 2011년 1월의 국내 총생산(성장률)도 6.8%로 순조로우며 2월 이후에도 계속 상승조짐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자체적으로 파렛트재 국내소비도 증가되고 있어 칠레의 중소제재공장들은 수출보다는 국내 판매 위주로 생산할 정도이다. 우리나라는 주로 칠레의 아라우코사(본사 산티아고) 제품이 수입되고 있는데, 아라우코사 11개 공장은 2010년 6월부터 2~3교대로 100% 생산을 하고 있다. 다만 아라우코사의 엘콜로라도 제재공장은 그린 제재라인 재편공사가 3~6월까지 예정되어 있어 3월부터 6월까지는 월 2만5000㎡의 생산 감소가 되고 있지만 7월 이후부터 정상화되면 생산량이 약 15%증가되어 2011년 연간 생산량을 245만㎡가 될 것이 예상되고 있다.